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정원석 연구위원, 박정희 선임연구원

-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 추진에 대한 보험설계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국 생명보험회사 전속설계사 2,560명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결과 설계사들은 노력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직무수행 및 시간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점 때문에 설계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 설계사를 선택한 동기 중 가장 많은 응답은 노력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38.2%), 겸업 등 효율적인 시간활용이 가능해서(26.4%)로 나타났음
- 설계사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위촉(78.3%)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76.3%)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설계사들은 본인 직무가 사업자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판촉비 등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 사업소득세 납부가 본인 직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설계사들 중 다수(56.2%)는 타업종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노동조합이 설립된다 해도 가입의향은 낮은(33.9%) 것으로 나타났음
- 설계사들은 대부분 직무 관련 위험보장을 위해 회사로부터 단체보험을 제공받고(94.2%) 있었으며, 설계사들 역시 산재보험보다 단체보험을 선호(85.7%)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로는 단체보험의 보장범위가 산재보험에 비해 더 넓고(45.8%) 보상조건이 관대(19.3%)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시간 사용이 유연한 설계사들이 직업 특성상 업무시간과 자유시간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보험사고 발생 시 산재사고 증명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임
- 고용보험의무화와 관련하여 대다수 설계사가 반대(38.0%) 혹은 가입여부를 선택(45.5%)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음
 - 설계사는 소득감소로 설계사 직업을 자의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자발적 실업 시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가입은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1. 조사배경



■ 정부와 국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음

- 국정기획위는 ‘사회(고용)안전망 확대·강화’를 위해 2018년 상반기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힘
- 제20대 국회 출범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 고용보험 적용 등 이들에 대한 근로자성 적용과 관련된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음
 - 한정애 의원 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가입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였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생명보험 보험설계사에 대한 근로자성 적용에 관한 보험설계사들의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함

2. 보험설계사들의 인식



가. 조사방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안에 대한 설계사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생명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함

- 교보, 미래, 삼성, 신한, 한화, AIA, ING, MetLife 등 8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2,560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 설문조사기관은 서울마케팅리서치이며, 조사방법은 2017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는 모두 111,393명이고, 손해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는 총 79,684명으로 전체 전속설계사 숫자는 191,077명임¹⁾
 - 일부 설계사만을 추출하여 분석했으므로 추정결과에 통계적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

설문조사 결과, 800명이 전화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3.44%)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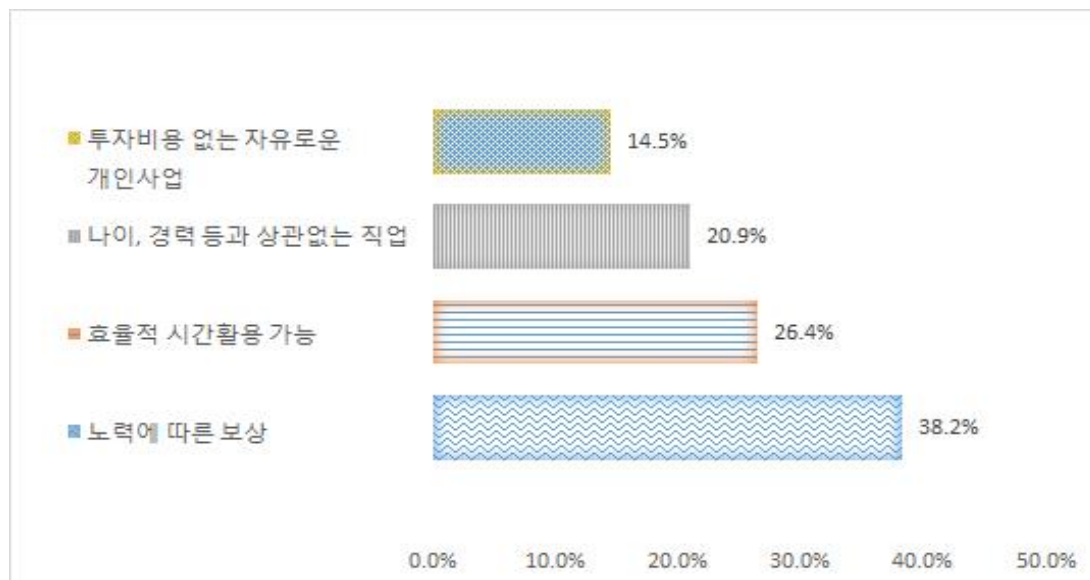
- 유효표본(설문에 응한 표본) 중 남성설계사의 비율은 17.8%이고 여성설계사의 비율은 82.2%로 여성 비율이 높았음
- 연령대는 50대가 40.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의 비중 역시 29.8%로 높은 수준이었음
- 위촉연수는 5년 이상자가 58.8%로 가장 많았으며, 3~5년 11.8%, 1~3년 16.9% 그리고 1년 미만이 12.6%이었음
- 월 소득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인 자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300~500만 원이 23.9%, 200~300만 원이 24.3%, 100~200만 원이 17%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이 2.8%로 나타났음

나.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

보험설계사를 선택한 동기로는 본인의 노력에 따른 보상, 효율적 시간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었음

- 본인의 노력에 따라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38.2%였으며 겸업 등 효율적 시간 활용이 가능해서라는 응답이 26.4%, 경력 등과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어서가 20.9%로 나타났음

〈그림 1〉 보험설계사 직업선택 동기



1)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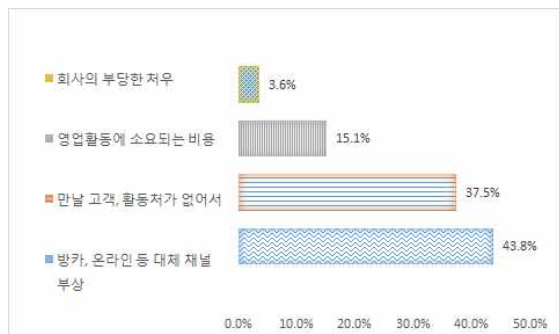
■ 보험영업을 할 때 가장 힘든 점은 대체 채널의 부상 등 외적 요인과 만날 고객의 부재 등 내적요인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카, 온라인 등 대체 채널의 부상을 힘든 점으로 든 설계사가 43.8%에 이르렀으며, 만날 고객 및 활동처가 없는 것을 어려움으로 꼽은 설계사가 37.5% 그리고 영업활동에 따른 비용부담을 어려움으로 든 설계사가 15.1%인 것으로 나타남
 - 회사의 부당한 처우 등을 꼽은 비중은 3.6%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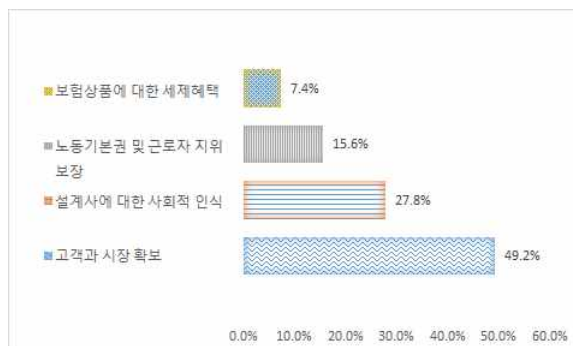
■ 보험설계사로서 활동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고객과 시장 확보와 설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꼽음

-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이르는 49.2%가 고객과 시장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하였고, 사회적 인식을 꼽은 비중 역시 27.8%로 높은 수준이었음
 - 한편, 설계사의 근로자 지위보장 등을 든 설계사는 15.6%였음

〈그림 2〉 보험영업 시 힘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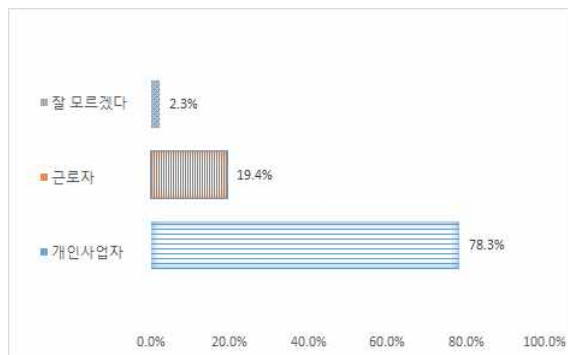
〈그림 3〉 설계사로서 경제활동 시 중요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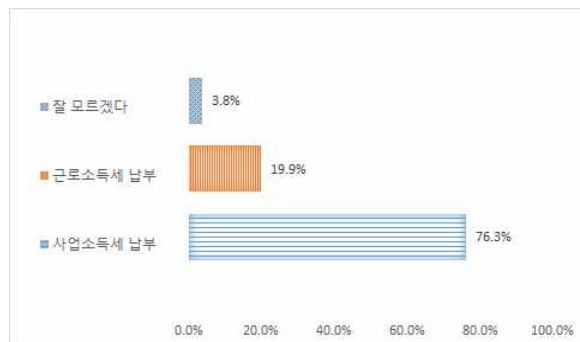
■ 설계사들은 고용형태로는 근로자보다 개인사업자를, 그리고 납세형태로는 근로소득세보다 사업소득세 납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인사업자를 선호하는 비중이 78.3%, 근로자를 선호하는 비중이 19.4%로 나타남
- 사업소득세 납부를 선호하는 비중이 76.3%, 근로소득세 납부를 선호하는 비중은 19.9%로 나타남

〈그림 4〉 설계사들이 선호하는 고용형태



〈그림 5〉 설계사들이 선호하는 납세형태



다. 노동조합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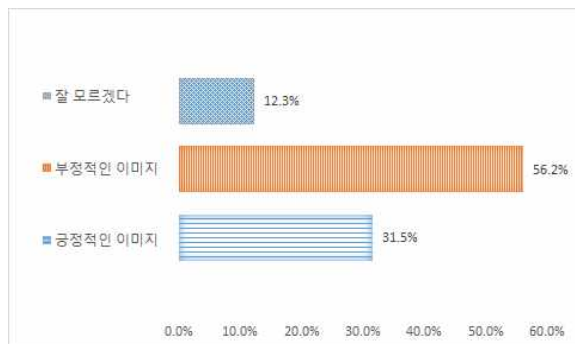
■ 설계사들의 타업종 노동조합에 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타업종 노동조합들이 조합원의 이익보다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56.2%인 반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라는 응답은 31.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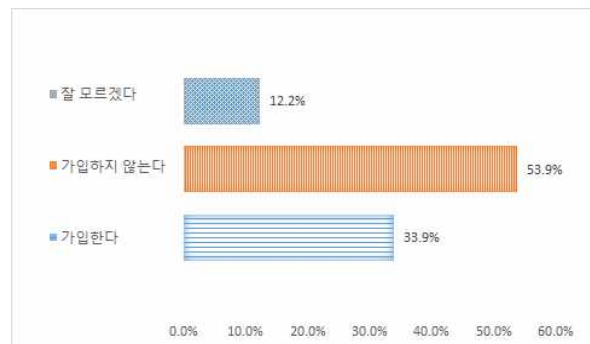
■ 설계사노조 설립 시 가입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시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9%, 가입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3.9%임
- 능력에 따른 보수를 받기 원하고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선호하는 설계사의 특성상 노조가입의 필요성을 느끼는 설계사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설계사 직업의 힘든 점을 묻는 질문에서도 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지적한 비율은 3.6%에 불과함

〈그림 6〉 타업종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



〈그림 7〉 설계사들의 노동조합 가입의향



라. 산재보험 관련 인식

- 설계사들은 영업 활동 중 재해 및 사고에 대비해 보험회사가 가입해 주고 있는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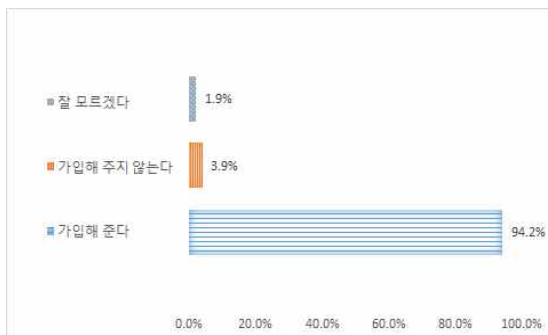
●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한 설계사의 비중은 94.2%였으며 미가입자의 비중은 3.9%로 나타남

- 설계사들은 산재보험 가입보다 현재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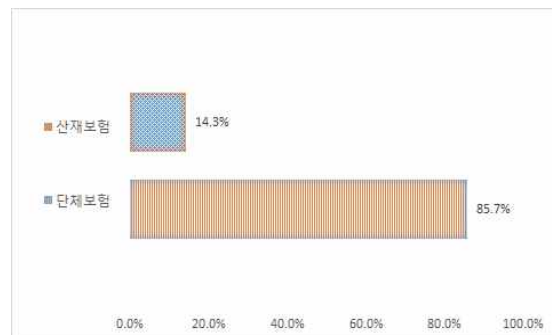
●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설계사 비중은 85.7%로 산재보험을 선호하는 설계사 비중 14.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넓기 때문이 45.8%, 본인부담 없음이 34.2% 그리고 산재보험은 보장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9.3%에 이르렀음

〈그림 8〉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 가입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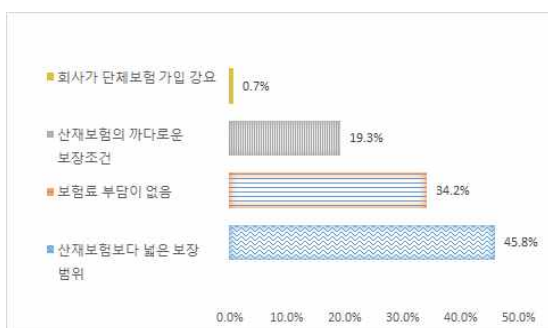
〈그림 9〉 단체보험과 산재보험 중 선호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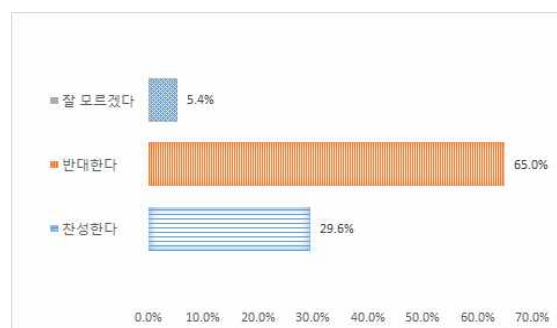
■ 산재보험 가입의무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에 비해 높았음

- 산재보험 가입의무화에 대해 반대가 65.0%로 찬성 29.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0〉 산재보험에 비해 단체보험을 선호 이유



〈그림 11〉 산재보험 가입의무화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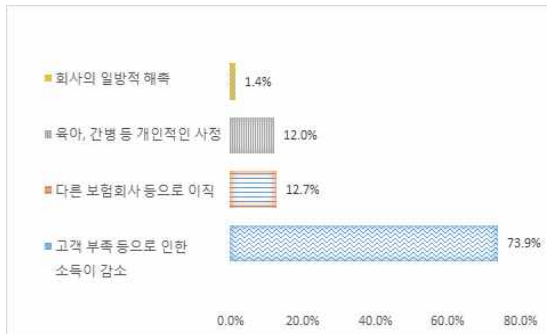


마. 고용보험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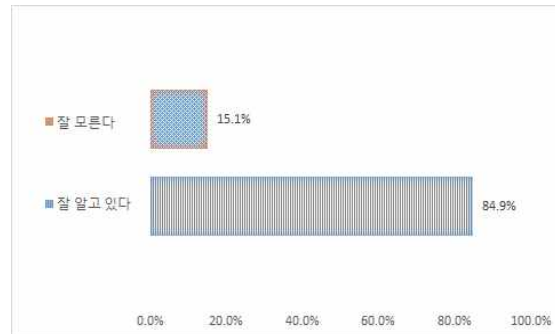
■ 주변의 동료들 중 설계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고객부족, 시장상황 악화를 들었음

- 고객 부족 및 시장상황 악화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이유로 응답한 설계사의 비율이 73.9%에 달했음
 - 다른 보험회사로 옮기기 위해서가 12.7%, 육아·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이 12.0%였음
 - 본인의사와 상관없는 회사의 해촉으로 인해 그만두는 경우는 1.4%에 불과했음
- 이는 앞서 조사한 보험설계사를 선택한 동기(노력에 따른 고소득) 및 설계사로서 활동 시 중요한 점(고객과 시장 확보)과 연관 지어 볼 때 실적부진으로 인한 자발적 전직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12〉 동료 중 설계사를 그만두는 경우 이유



〈그림 13〉 실업급여 수령 조건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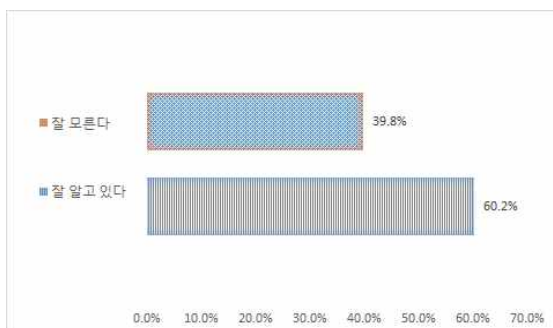
■ 설계사들은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지급조건 및 본인보험료 부담과 관련된 사항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보험이 제공하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 시에만 수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설계사의 비율은 84.9%임
-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입당사자도 보험료를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설계사의 비율은 60.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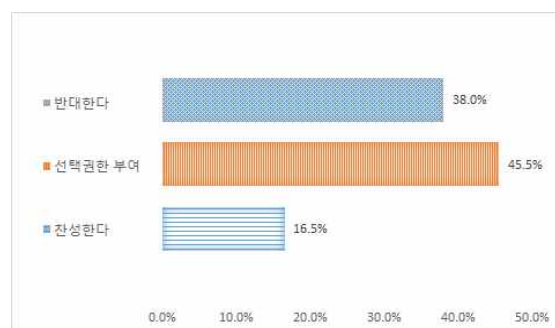
■ 설계사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부정적임

- 설계사들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8.0%는 의무가입에 반대하였으며 45.5%가 본인부담이 늘어나므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반면, 고용보험 가입의무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16.5%에 불과하였음
- 설계사들은 본인들의 직업 특성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14〉 고용보험 가입 시 본인 부담 보험료 발생 인지여부



〈그림 15〉 고용보험 가입의무화에 대한 설계사들의 인식



3. 결론 및 시사점



- 설계사들의 직업인식을 볼 때 설계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본인의 노력에 비례하는 금전적 보상, 자율적인 시간활용, 경력과 상관없는 업무 등의 장점 때문에 설계사를 선택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회사로부터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업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험설계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개인사업자로서 고용 및 납세 방식을 근로자로서의 고용 및 납세방식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이 본인들의 직무가 사업자와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업자로 인정받는 것이 영업활동을 위한 유연한 시간운용 및 성과에 따른 보상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고객과 만남 및 판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소득세 적용이 본인들의 직무 특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 설계사들은 타업종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설계사 노조 설립 시 가입의 향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설계사라는 직업을 개인사업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응할 노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실제로 설계사 직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운 점으로 회사의 부당한 처우를 든 설계사는 3.6%에 불과했음
- 설계사들은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넓고, 보장조건이 산재보험에 비해 관대한 단체보험을 선호하였음
 -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체보험의 보장범위가 넓고, 산재보험의 보장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임
 - 이는 시간 사용이 유연한 설계사의 직업 특성상 보험사고 발생 시 산재 증명이 쉽지 않아 보험

- 료 부담만 발생하고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임
- 반면, 단체보험은 상해 발생 시 보상 받기가 용이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답변으로 보임

■ 설계사들은 고용주의 일방적인 해고 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고용보험은 본인들의 직무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를 그만두는 경우 중 98% 이상이 자발적 퇴직이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해촉 시에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고용보험 가입은 설계사에게 부담만 지우고 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설계사 대부분이 고용보험 가입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임

■ 설문조사 결과 보험설계사들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업무 관련 사회보험은 본인들의 직무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무가입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수고용근로자에는 설계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그리고 골프장 캐디 등 특성을 가진 종사자가 존재하므로 각각의 업무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 특히 해당 종사자 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해 사회보험 제공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정책 도입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음 **kiri**

〈부록 1: 설문조사 구성 및 세부결과〉

〈부록 표 1〉 설문조사 표본 구성

(단위: 명)

회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합계
한화	320	80	50	40	40	40	570
삼성	380	100	75	65	70	50	740
교보	300	70	40	40	30	30	510
신한	130	30	20	20	15	15	230
미래	90	20	—	—	15	15	140
AIA	60	20	10	—	—	—	90
ING	130	—	—	20	—	—	150
MetLife	100	20	10	—	—	—	130
합계	1,510	340	205	185	170	150	2,560

〈부록 표 2〉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800	100.0
성별	남성	142	17.8
	여성	658	82.2
연령	20대	45	5.6
	30대	92	11.5
	40대	238	29.8
	50대	327	40.9
	60대 이상	98	12.3
근무연수	1년 미만	101	12.6
	1년~3년 미만	135	16.9
	3년~5년 미만	94	11.8
	5년 이상	470	58.8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22	2.8
	100만 원~200만 원 미만	136	17.0
	200만 원~300만 원 미만	194	24.3
	300만 원~500만 원 미만	191	23.9
	500만 원 이상	257	32.1
회사	한화생명	177	22.1
	삼성생명	232	29.0
	교보생명	158	19.8
	신한생명	72	9.0
	미래에셋생명	44	5.5
	AIA생명	30	3.8
	ING생명	47	5.9
	MetLife생명	40	5.0
지역	서울	480	60.0
	인천	51	6.4
	부산	105	13.1
	대구	64	8.0
	대전	49	6.1
	광주	51	6.4

〈부록 표 3〉 보험설계사 직업 선택 동기

(단위: %)

구분		사례 수	본인 노력에 따라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가사활동 병행, 겸업 등 효율적인 시간활용이 가능해서	나이, 경력 등과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어서	투자비용 없고 자유롭게 이직이 가능한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800)	38.2	26.4	20.9	14.5
성별	남성	(142)	70.4	6.3	13.4	9.9
	여성	(658)	31.3	30.7	22.5	15.5
연령	20대	(45)	77.8	6.7	11.1	4.4
	30대	(92)	68.5	13.0	8.7	9.8
	40대	(238)	36.6	31.5	18.5	13.4
	50대	(327)	30.6	27.5	23.9	18.0
	60대 이상	(98)	21.4	31.6	32.7	14.3
근무연수	1년 미만	(101)	48.5	21.8	17.8	11.9
	1년~3년 미만	(135)	33.3	25.9	22.2	18.5
	3년~5년 미만	(94)	38.3	23.4	21.3	17.0
	5년 이상	(470)	37.4	28.1	21.1	13.4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22)	22.7	40.9	22.7	13.6
	100~200만 원 미만	(136)	20.6	33.8	27.9	17.6
	200~300만 원 미만	(194)	27.3	35.1	20.1	17.5
	300~500만 원 미만	(191)	39.3	24.6	19.9	16.2
	500만 원 이상	(257)	56.4	16.0	18.3	9.3
지역	서울	(480)	42.5	24.0	20.2	13.3
	인천	(51)	41.2	25.5	21.6	11.8
	부산	(105)	33.3	25.7	25.7	15.2
	대구	(64)	29.7	32.8	20.3	17.2
	대전	(49)	32.7	28.6	22.4	16.3

〈부록 표 4〉 보험설계사 직업수행 시 어려운 점

(단위: %)

구분		사례 수	방카, 온라인 등 대체 채널의 부상	만날 고객, 활동처가 없어서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회사의 일방적인 위촉계약 변경, 해지 등 부당한 처우
전체		(800)	43.8	37.5	15.1	3.6
성별	남성	(142)	26.1	50.7	16.2	7.0
	여성	(658)	47.6	34.7	14.9	2.9
연령	20대	(45)	15.6	73.3	6.7	4.4
	30대	(92)	29.3	46.7	20.7	3.3
	40대	(238)	40.3	41.6	13.4	4.6
	50대	(327)	49.5	30.6	17.1	2.8
	60대 이상	(98)	59.2	25.5	11.2	4.1
근무연수	1년 미만	(101)	27.7	58.4	12.9	1.0
	1년~3년 미만	(135)	36.3	47.4	11.9	4.4
	3년~5년 미만	(94)	37.2	44.7	11.7	6.4
	5년 이상	(470)	50.6	28.7	17.2	3.4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22)	36.4	59.1	4.5	0.0
	100~200만 원 미만	(136)	47.8	42.6	6.6	2.9
	200~300만 원 미만	(194)	42.8	41.2	12.4	3.6
	300~500만 원 미만	(191)	46.6	33.0	16.8	3.7
	500만 원 이상	(257)	40.9	33.5	21.4	4.3
지역	서울	(480)	44.2	38.1	14.2	3.5
	인천	(51)	60.8	19.6	15.7	3.9
	부산	(105)	43.8	40.0	14.3	1.9
	대구	(64)	42.2	40.6	14.1	3.1
	대전	(49)	34.7	38.8	26.5	0.0

〈부록 표 5〉 보험설계사로서 직무 수행 시 중요한 점

(단위: %)

구분		사례 수	고객과 시장 확보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기본권 및 근로자 지위 보장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전체		(800)	49.2	27.8	15.6	7.4
성별	남성	(142)	47.2	34.5	10.6	7.7
	여성	(658)	49.7	26.3	16.7	7.3
연령	20대	(45)	40.0	46.7	4.4	8.9
	30대	(92)	43.5	39.1	9.8	7.6
	40대	(238)	50.8	27.7	15.5	5.9
	50대	(327)	53.2	20.5	18.0	8.3
	60대 이상	(98)	41.8	32.7	18.4	7.1
근무연수	1년 미만	(101)	37.6	41.6	9.9	10.9
	1년~3년 미만	(135)	50.4	31.9	14.1	3.7
	3년~5년 미만	(94)	51.1	28.7	16.0	4.3
	5년 이상	(470)	51.1	23.4	17.2	8.3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22)	45.5	31.8	18.2	4.5
	100~200만 원 미만	(136)	54.4	25.0	16.2	4.4
	200~300만 원 미만	(194)	46.9	27.3	18.6	7.2
	300~500만 원 미만	(191)	47.1	24.1	18.3	10.5
	500만 원 이상	(257)	50.2	31.9	10.9	7.0
지역	서울	(480)	45.2	30.6	16.3	7.9
	인천	(51)	56.9	17.6	11.8	13.7
	부산	(105)	55.2	23.8	16.2	4.8
	대구	(64)	54.7	26.6	12.5	6.3
	대전	(49)	53.1	24.5	16.3	6.1

〈부록 표 6〉 보험설계사 직업형태 선호도

(단위: %)

구분		사례 수	개인사업자	근로자	잘 모름
전체		(800)	78.3	19.4	2.3
성별	남성	(142)	85.2	13.4	1.4
	여성	(658)	76.9	20.7	2.4
연령	20대	(45)	88.9	11.1	0.0
	30대	(92)	88.0	9.8	2.2
	40대	(238)	79.4	18.9	1.7
	50대	(327)	75.2	21.7	3.1
	60대 이상	(98)	72.4	25.5	2.0
근무연수	1년 미만	(101)	79.2	18.8	2.0
	1년~3년 미만	(135)	77.0	21.5	1.5
	3년~5년 미만	(94)	73.4	25.5	1.1
	5년 이상	(470)	79.6	17.7	2.8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22)	77.3	22.7	0.0
	100~200만 원 미만	(136)	68.4	27.9	3.7
	200~300만 원 미만	(194)	74.7	23.2	2.1
	300~500만 원 미만	(191)	79.6	19.4	1.0
	500만 원 이상	(257)	85.6	11.7	2.7
지역	서울	(480)	77.1	21.0	1.9
	인천	(51)	90.2	9.8	0.0
	부산	(105)	82.9	15.2	1.9
	대구	(64)	78.1	14.1	7.8
	대전	(49)	69.4	28.6	2.0

〈부록 표 7〉 보험설계사 납세형태 선호도

(단위: %)

구분		사례 수	사업소득세 납부	근로소득세 납부	잘 모름
전체		(800)	76.3	19.9	3.8
성별	남성	(142)	79.6	18.3	2.1
	여성	(658)	75.7	20.2	4.1
연령	20대	(45)	86.7	11.1	2.2
	30대	(92)	73.9	22.8	3.3
	40대	(238)	78.6	17.2	4.2
	50대	(327)	73.1	22.9	4.0
	60대 이상	(98)	79.6	17.3	3.1
근무연수	1년 미만	(101)	80.2	16.8	3.0
	1년~3년 미만	(135)	74.8	22.2	3.0
	3년~5년 미만	(94)	67.0	28.7	4.3
	5년 이상	(470)	77.9	18.1	4.0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22)	63.6	27.3	9.1
	100~200만 원 미만	(136)	69.1	26.5	4.4
	200~300만 원 미만	(194)	72.2	24.2	3.6
	300~500만 원 미만	(191)	80.1	17.3	2.6
	500만 원 이상	(257)	81.7	14.4	3.9
지역	서울	(480)	75.2	21.3	3.5
	인천	(51)	90.2	5.9	3.9
	부산	(105)	77.1	18.1	4.8
	대구	(64)	76.6	15.6	7.8
	대전	(49)	69.4	28.6	2.0

〈부록 표 8〉 보험설계사 납세형태 선호도

(단위: %)

구분		사례 수	사업소득세 납부	근로소득세 납부	잘 모름
전체		(800)	76.4	19.9	3.8
성별	남성	(142)	79.6	18.3	2.1
	여성	(658)	75.7	20.2	4.1
연령	20대	(45)	86.7	11.1	2.2
	30대	(92)	73.9	22.8	3.3
	40대	(238)	78.6	17.2	4.2
	50대	(327)	73.1	22.9	4.0
	60대 이상	(98)	79.6	17.3	3.1
근무연수	1년 미만	(101)	80.2	16.8	3.0
	1년~3년 미만	(135)	74.8	22.2	3.0
	3년~5년 미만	(94)	67.0	28.7	4.3
	5년 이상	(470)	77.9	18.1	4.0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22)	63.6	27.3	9.1
	100~200만 원 미만	(136)	69.1	26.5	4.4
	200~300만 원 미만	(194)	72.2	24.2	3.6
	300~500만 원 미만	(191)	80.1	17.3	2.6
	500만 원 이상	(257)	81.7	14.4	3.9
지역	서울	(480)	75.2	21.3	3.5
	인천	(51)	90.2	5.9	3.9
	부산	(105)	77.1	18.1	4.8
	대구	(64)	76.6	15.6	7.8
	대전	(49)	69.4	28.6	2.0

〈부록 표 9〉 보험설계사의 타업종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

(단위: %)

구분		사례 수	긍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	잘 모름
전체		(800)	31.5	56.2	12.3
성별	남성	(142)	35.2	57.0	7.7
	여성	(658)	30.7	56.1	13.2
연령	20대	(45)	46.7	46.7	6.7
	30대	(92)	31.5	57.6	10.9
	40대	(238)	27.3	58.0	14.7
	50대	(327)	29.4	60.6	10.1
	60대 이상	(98)	41.8	40.8	17.3
근무연수	1년 미만	(101)	36.6	51.5	11.9
	1년~3년 미만	(135)	34.1	54.8	11.1
	3년~5년 미만	(94)	29.8	59.6	10.6
	5년 이상	(470)	30.0	57.0	13.0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22)	40.9	40.9	18.2
	100~200만 원 미만	(136)	34.6	52.2	13.2
	200~300만 원 미만	(194)	33.0	52.1	14.9
	300~500만 원 미만	(191)	33.0	56.5	10.5
	500만 원 이상	(257)	26.8	62.6	10.5
지역	서울	(480)	32.3	55.6	12.1
	인천	(51)	15.7	62.7	21.6
	부산	(105)	28.6	61.9	9.5
	대구	(64)	28.1	59.4	12.5
	대전	(49)	36.7	55.1	8.2

〈부록 표 10〉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시 가입의향

(단위: %)

구분		사례 수	가입	미가입	잘 모름
전체		(800)	33.9	53.9	12.3
성별	남성	(142)	31.7	50.7	17.6
	여성	(658)	34.3	54.6	11.1
연령	20대	(45)	17.8	60.0	22.2
	30대	(92)	33.7	53.3	13.0
	40대	(238)	42.0	47.1	10.9
	50대	(327)	33.0	56.6	10.4
	60대 이상	(98)	24.5	59.2	16.3
근무연수	1년 미만	(101)	25.7	52.5	21.8
	1년~3년 미만	(135)	28.1	59.3	12.6
	3년~5년 미만	(94)	37.2	51.1	11.7
	5년 이상	(470)	36.6	53.2	10.2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22)	27.3	45.5	27.3
	100~200만 원 미만	(136)	22.8	58.8	18.4
	200~300만 원 미만	(194)	35.1	54.1	10.8
	300~500만 원 미만	(191)	38.7	51.3	9.9
	500만 원 이상	(257)	35.8	53.7	10.5
지역	서울	(480)	36.5	50.8	12.7
	인천	(51)	19.6	72.5	7.8
	부산	(105)	34.3	57.1	8.6
	대구	(64)	18.8	56.3	25.0
	대전	(49)	40.8	51.0	8.2

〈부록 표 11〉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 가입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	가입	미가입	잘 모름
전체		(800)	94.2	3.9	1.9
성별	남성	(142)	81.0	13.4	5.6
	여성	(658)	97.1	1.8	1.1
연령	20대	(45)	75.6	13.3	11.1
	30대	(92)	84.8	9.8	5.4
	40대	(238)	94.5	3.8	1.7
	50대	(327)	98.2	1.5	0.3
	60대 이상	(98)	98.0	2.0	0.0
근무연수	1년 미만	(101)	86.1	6.9	6.9
	1년~3년 미만	(135)	95.6	3.7	0.7
	3년~5년 미만	(94)	93.6	3.2	3.2
	5년 이상	(470)	95.7	3.4	0.9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22)	90.9	4.5	4.5
	100~200만 원 미만	(136)	97.8	0.7	1.5
	200~300만 원 미만	(194)	95.9	3.1	1.0
	300~500만 원 미만	(191)	92.7	4.2	3.1
	500만 원 이상	(257)	92.6	5.8	1.6
지역	서울	(480)	92.3	5.2	2.5
	인천	(51)	100.0	0.0	0.0
	부산	(105)	96.2	1.9	1.9
	대구	(64)	95.3	3.1	1.6
	대전	(49)	98.0	2.0	0.0

〈부록 표 12〉 선호하는 보험형태

(단위: %)

구분		사례 수	단체보험	산재보험
전체		(800)	85.8	14.3
성별	남성	(142)	80.3	19.7
	여성	(658)	86.9	13.1
연령	20대	(45)	84.4	15.6
	30대	(92)	78.3	21.7
	40대	(238)	87.8	12.2
	50대	(327)	86.9	13.1
	60대 이상	(98)	84.7	15.3
근무연수	1년 미만	(101)	83.2	16.8
	1년~3년 미만	(135)	85.2	14.8
	3년~5년 미만	(94)	80.9	19.1
	5년 이상	(470)	87.4	12.6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22)	90.9	9.1
	100~200만 원 미만	(136)	84.6	15.4
	200~300만 원 미만	(194)	84.0	16.0
	300~500만 원 미만	(191)	86.4	13.6
	500만 원 이상	(257)	86.8	13.2
지역	서울	(480)	84.6	15.4
	인천	(51)	92.2	7.8
	부산	(105)	86.7	13.3
	대구	(64)	87.5	12.5
	대전	(49)	87.8	12.2

〈부록 표 13〉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이유(단체보험 선호자만 응답)

(단위: %)

구분		사례 수	산재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본인 보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은 보장 받기가 까다로울 것 같아서	회사가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해서
전체		(685)	45.8	34.2	19.3	0.7
성별	남성	(114)	46.5	34.2	18.4	0.9
	여성	(571)	45.7	34.2	19.4	0.7
연령	20대	(38)	42.1	31.6	26.3	0.0
	30대	(72)	47.2	29.2	23.6	0.0
	40대	(208)	51.0	24.0	24.0	1.0
	50대	(284)	43.0	40.8	15.1	1.1
	60대 이상	(83)	43.4	42.2	14.5	0.0
근무연수	1년 미만	(84)	46.4	31.0	22.6	0.0
	1년~3년 미만	(114)	39.5	36.0	24.6	0.0
	3년~5년 미만	(76)	57.9	27.6	13.2	1.3
	5년 이상	(411)	45.3	35.5	18.2	1.0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20)	35.0	45.0	20.0	0.0
	100~200만 원 미만	(115)	46.1	33.9	20.0	0.0
	200~300만 원 미만	(162)	42.0	38.9	18.5	0.6
	300~500만 원 미만	(165)	49.7	27.9	21.8	0.6
	500만 원 이상	(223)	46.6	34.5	17.5	1.3
지역	서울	(405)	45.4	33.8	20.5	0.2
	인천	(47)	55.3	36.2	8.5	0.0
	부산	(91)	46.2	36.3	17.6	0.0
	대구	(56)	39.3	37.5	21.4	1.8
	대전	(43)	51.2	23.3	20.9	4.7

〈부록 표 14〉 산재보험을 선호하는 이유(산재보험 선호자만 응답)

(단위: %)

구분		사례 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어서	국가가 운영 하는 보험이라 보장에 대한 신뢰가 가서	단체보험보다 보험금이 더 크기 때문에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114)	58.8	26.3	11.4	3.5
성별	남성	(28)	46.4	25.0	28.6	0.0
	여성	(86)	62.8	26.7	5.8	4.7
연령	20대	(7)	57.1	28.6	14.3	0.0
	30대	(20)	60.0	15.0	25.0	0.0
	40대	(29)	51.7	34.5	3.4	10.3
	50대	(43)	60.5	25.6	11.6	2.3
	60대 이상	(15)	66.7	26.7	6.7	0.0
근무연수	1년 미만	(17)	64.7	23.5	11.8	0.0
	1년~3년 미만	(20)	55.0	40.0	5.0	0.0
	3년~5년 미만	(18)	55.6	27.8	11.1	5.6
	5년 이상	(59)	59.3	22.0	13.6	5.1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2)	50.0	50.0	0.0	0.0
	100~200만 원 미만	(21)	47.6	42.9	9.5	0.0
	200~300만 원 미만	(31)	58.1	29.0	12.9	0.0
	300~500만 원 미만	(26)	73.1	11.5	11.5	3.8
	500만 원 이상	(34)	55.9	23.5	11.8	8.8
지역	서울	(74)	64.9	20.3	12.2	2.7
	인천	(4)	0.0	75.0	0.0	25.0
	부산	(14)	57.1	28.6	14.3	0.0
	대구	(8)	37.5	37.5	25.0	0.0
	대전	(6)	66.7	33.3	0.0	0.0

〈부록 표 15〉 산재보험 가입의무화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 수	찬성	반대	잘 모름
전체		(800)	29.6	65.0	5.4
성별	남성	(142)	35.9	59.9	4.2
	여성	(658)	28.3	66.1	5.6
연령	20대	(45)	28.9	66.7	4.4
	30대	(92)	35.9	59.8	4.3
	40대	(238)	26.1	69.7	4.2
	50대	(327)	30.3	63.6	6.1
	60대 이상	(98)	30.6	62.2	7.1
근무연수	1년 미만	(101)	33.7	59.4	6.9
	1년~3년 미만	(135)	30.4	65.2	4.4
	3년~5년 미만	(94)	36.2	57.4	6.4
	5년 이상	(470)	27.2	67.7	5.1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22)	27.3	63.6	9.1
	100~200만 원 미만	(136)	36.8	56.6	6.6
	200~300만 원 미만	(194)	28.4	66.0	5.7
	300~500만 원 미만	(191)	31.4	62.8	5.8
	500만 원 이상	(257)	25.7	70.4	3.9
지역	서울	(480)	28.1	66.0	5.8
	인천	(51)	31.4	64.7	3.9
	부산	(105)	28.6	67.6	3.8
	대구	(64)	35.9	54.7	9.4
	대전	(49)	40.8	53.1	6.1

〈부록 표 16〉 동료들 중 설계사를 그만 두는 경우 이유

(단위: %)

구분		사례 수	고객 부족, 시장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서	다른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기 위해	육아, 간병, 질병치료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의 일방적 해촉에 의해
전체		(800)	73.9	12.7	12.0	1.4
성별	남성	(142)	85.2	7.7	6.3	0.7
	여성	(658)	71.4	13.8	13.2	1.5
연령	20대	(45)	95.6	0.0	4.4	0.0
	30대	(92)	80.4	14.1	5.4	0.0
	40대	(238)	67.6	16.4	14.3	1.7
	50대	(327)	73.4	12.5	11.9	2.1
	60대 이상	(98)	74.5	9.2	16.3	0.0
근무연수	1년 미만	(101)	80.2	7.9	9.9	2.0
	1년~3년 미만	(135)	77.8	8.9	11.9	1.5
	3년~5년 미만	(94)	73.4	14.9	10.6	1.1
	5년 이상	(470)	71.5	14.5	12.8	1.3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22)	77.3	9.1	9.1	4.5
	100~200만 원 미만	(136)	73.5	8.8	15.4	2.2
	200~300만 원 미만	(194)	75.8	10.8	12.9	0.5
	300~500만 원 미만	(191)	70.2	14.7	13.6	1.6
	500만 원 이상	(257)	75.1	15.2	8.6	1.2
지역	서울	(480)	73.5	12.9	11.5	2.1
	인천	(51)	72.5	9.8	15.7	2.0
	부산	(105)	81.0	9.5	9.5	0.0
	대구	(64)	78.1	14.1	7.8	0.0
	대전	(49)	67.3	14.3	18.4	0.0

〈부록 표 17〉 실업급여 지급 조건 인지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	인지	미인지
전체		(800)	84.9	15.1
성별	남성	(142)	81.0	19.0
	여성	(658)	85.7	14.3
연령	20대	(45)	77.8	22.2
	30대	(92)	88.0	12.0
	40대	(238)	87.4	12.6
	50대	(327)	84.4	15.6
	60대 이상	(98)	80.6	19.4
근무연수	1년 미만	(101)	87.1	12.9
	1년~3년 미만	(135)	86.7	13.3
	3년~5년 미만	(94)	78.7	21.3
	5년 이상	(470)	85.1	14.9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22)	77.3	22.7
	100~200만 원 미만	(136)	87.5	12.5
	200~300만 원 미만	(194)	84.5	15.5
	300~500만 원 미만	(191)	85.9	14.1
	500만 원 이상	(257)	83.7	16.3
지역	서울	(480)	82.5	17.5
	인천	(51)	94.1	5.9
	부산	(105)	85.7	14.3
	대구	(64)	92.2	7.8
	대전	(49)	87.8	12.2

〈부록 표 18〉 고용보험 가입 시 본인부담 보험료 발생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	인지	미인지
전체		(800)	60.2	39.8
성별	남성	(142)	67.6	32.4
	여성	(658)	58.7	41.3
연령	20대	(45)	62.2	37.8
	30대	(92)	70.7	29.3
	40대	(238)	62.2	37.8
	50대	(327)	59.3	40.7
	60대 이상	(98)	48.0	52.0
근무연수	1년 미만	(101)	61.4	38.6
	1년~3년 미만	(135)	64.4	35.6
	3년~5년 미만	(94)	56.4	43.6
	5년 이상	(470)	59.6	40.4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22)	31.8	68.2
	100~200만 원 미만	(136)	58.8	41.2
	200~300만 원 미만	(194)	61.3	38.7
	300~500만 원 미만	(191)	61.8	38.2
	500만 원 이상	(257)	61.5	38.5
지역	서울	(480)	59.8	40.2
	인천	(51)	66.7	33.3
	부산	(105)	61.0	39.0
	대구	(64)	59.4	40.6
	대전	(49)	59.2	40.8

〈부록 표 19〉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 수	찬성	선택권한 부여	반대
전체		(800)	16.5	45.5	38.0
성별	남성	(142)	19.7	49.3	31.0
	여성	(658)	15.8	44.7	39.5
연령	20대	(45)	15.6	66.7	17.8
	30대	(92)	16.3	46.7	37.0
	40대	(238)	14.7	47.1	38.2
	50대	(327)	18.0	44.0	37.9
	60대 이상	(98)	16.3	35.7	48.0
근무연수	1년 미만	(101)	19.8	49.5	30.7
	1년~3년 미만	(135)	18.5	51.9	29.6
	3년~5년 미만	(94)	22.3	45.7	31.9
	5년 이상	(470)	14.0	42.8	43.2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22)	27.3	40.9	31.8
	100~200만 원 미만	(136)	22.1	44.1	33.8
	200~300만 원 미만	(194)	16.5	46.4	37.1
	300~500만 원 미만	(191)	18.3	46.6	35.1
	500만 원 이상	(257)	11.3	45.1	43.6
지역	서울	(480)	16.3	47.1	36.7
	인천	(51)	7.8	56.9	35.3
	부산	(105)	12.4	41.0	46.7
	대구	(64)	15.6	50.0	34.4
	대전	(49)	32.7	34.7	32.7

〈부록 2: 보험설계사 직업의식 조사 설문지〉

보험설계사 직업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울마케팅리서치 면접원 000입니다. 최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직종에 대한 보호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문 은 약 5분 정도 소요되므로 잠시 시간을 내주시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 서 응답하신 내용은 설문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연 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회 사 명	① 한화생명 ② 삼성생명 ③ 교보생명 ④ 신한생명 ⑤ 미래에셋생명 ⑥ AIA생명 ⑦ ING생명 ⑧ MetLife생명		
소 속 점 포 위 치	① 서울-강남동(서초, 강남, 송파, 강동) ② 서울-강남서(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③ 서울-강북동(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④ 서울-강북서(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 ⑤ 인천 ⑥ 경기 ⑦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⑧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⑨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⑩ 강원/제주도		

〈보험설계사 일반정보 확인〉

1. 선생님께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기간은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 3년~5년 미만 ④ 5년 이상

2. 현재 월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만 원~200만 원 미만 ③ 200만 원~300만 원 미만
 ④ 300만 원~500만 원 미만 ⑤ 500만 원 이상

〈보험설계사 직업에 대한 인식〉

3. 선생님께서 보험설계사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본인 노력에 따라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 ② 나이, 경력 등과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어서
- ③ 투자비용 없고 자유롭게 이직이 가능한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 ④ 가사활동 병행, 겸업 등 효율적인 시간활용이 가능하다.

4. 선생님께서 보험영업을 할 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만날 고객, 활동처가 없어서
- ② 방카, 온라인 등 설계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대체 채널의 부상
- ③ 회사의 일방적인 위촉계약 변경, 해지 등 부당한 처우
- ④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5. 선생님께서 설계사로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 ① 고객과 시장 확보
- ②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 ③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기본권 및 근로자 지위 보장
- ④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6. 선생님께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는 개인사업자와 출퇴근, 근로시간 및 장소 등을 준수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 어느 형태를 더 선호하십니까?

- ① 현재의 개인사업자
- ②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
- ③ 잘 모르겠다.

7. 현재 설계사는 사업자로서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와 같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싶다.
- ② 세금부담이 증가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싶다.
- ③ 잘 모르겠다.

〈노동조합 관련 인식〉

8. 선생님께서는 평소 TV 등 언론을 통해 알고계신 타 업종의 노동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조합원의 이익을 잘 대변함 - 긍정적인 이미지
- ② 조합원보다 정치적 이슈에만 관심을 가짐 - 부정적인 이미지
- ③ 잘 모르겠다.

9. 선생님께서는 보험설계사 노조가 설립된다면 가입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가입한다. ② 가입하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산재보험 관련 인식〉

10. 선생님의 회사는 영업활동 중 재해사고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습니까?

- ① 단체보험에 가입해 준다.
- ② 단체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는다.
- ③ 잘 모르겠다.

11. 선생님께서는 회사가 가입해주는 단체보험과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까?

- ① 단체보험 (12-1로 이동) ② 산재보험 (12-2로 이동)

12-1.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산재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 ② 본인 보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 ③ 회사가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해서
- ④ 산재보험은 보장 받기가 까다로울 것 같아서

12-2. 산재보험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단체보험보다 보험금이 더 크기 때문에
- ②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라 보장에 대한 신뢰가 가서

- ③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어서
- ④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13. 본인이 단체보험과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고용보험 관련 인식〉

14. 선생님 주변 동료들의 사례를 볼 때 보험설계사를 그만두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다른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기 위해
 - ② 고객 부족, 시장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서
 - ③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의 일방적 해촉에 의해
 - ④ 육아, 간병, 질병치료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5. 고용보험은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고, 회사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해촉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② 잘 모른다.
16.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시 당사자도 일부(연소득 3,800만 원 기준 시 연간 25만 원 수준)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② 잘 모른다.
17. 설계사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고 비자발적 실업 시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보장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찬성한다.
 - ② 본인 부담도 늘어나므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
 - ③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것 같으므로 반대한다.